



2024년 2월 4일(제1179호) 연중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관계의 끝, 그리고 시작”

사회와 그 속의 또 다른 사회인 군대.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 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 혹은 ‘타인’으로 인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관계의 균형을 따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오로지 ‘타인’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중요합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육신의 치유 사화이기에 그렇습니다.

열로 인해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에 시몬의 장모의 열은 가시고, 시몬 장모는 자신의 삶을 되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심은 단순한 일으킴을 넘어섭니다. 제1독서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을 하느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어 언제나 우리

를 기억하시고 희망과 사랑을 주시기에 단순한 일으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한 관계 맺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와 한 주간의 평일 전례에서 들려주듯, 하느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사명이 되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느님 자녀의 관계로 초대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열어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심과 같이, 가정, 부대, 성당, 혹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손이 필요한 이들을 찾는 시간이 되어봅시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는 한 주간 살아봅시다.



주경원(십자기의 요한) 신부
충장(육군 제31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욥 7,1-4.6-7

회 답 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 2 독 시

1코린 9,16-19.22-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 음

마르 1,29-39

영 성 제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두 번째 시집

이 모든 덕행에 감동한 선교사 신부님께서 그를 그 마을 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는 견진성사를 받은 후 성령 칠은의 특은을 충만히 받은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교로써 자기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칠 의욕이 나날이 커졌습니다.

1839년 일어난 기해박해가 날로 더욱 악랄하게 되자 요한은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들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집으로 가던 중 포졸들과 마주쳤습니다. 포졸들은 요한을 신자인 줄 알아보고 체포하여 그에게 이웃 신자들을 고발하라고 으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자 그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포졸들한테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여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잡혀 가는 길목인데도 느닷없이 힘과 활기가 용솟음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관가에 끌려가서 관장 앞에 섰을 때, 관장이 “네가 사악한 종교를 신봉한다니 참말이나?”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사악한 종교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천주교를 믿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리들이 그를 고문하는 동안에 재판관이 “너와 함께 천주교를 믿는 자가 몇 명이나? 그들이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대라. 그들이 어디 사는지 말하라” 하고 다그쳤습니다. 요한은 “저는 저의 형제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일차 문초가 끝난 후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서 포졸들과 군중들한테 무수한 행패와 매를 맞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는 며칠 후 다시 끌려 나와 문초를 받았습니다. 관장은 “네가 천주를 배반하면 나라의 착한 백성이 되겠고, 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상금까지도 보태 줄 것이다” 라고 구슬렸습니다. 요한은 “저는 관장께서 온 고을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하느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태를 자그만치 백 대 이상이나 맞고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천주교구 양양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돌아오는 길



그가 나를 찾아,
여기까지.

그를 안고
나도 웃었다.

그가 나를 매고,
이 길을 다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웃었다.
돌아오는 길에서.

나를 안고
그가 웃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바로로 성인



본 작품은 오늘 제2독서 말씀인 바로로 성인을 묘사한 것으로, 바티칸 광장에 있다. 15세기에 제작된 옛 작품을 대체해서 19세기에 제작된 것이며, 받침대 포함 높이가 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조각상이다.

바로로 성인은 한 손에는 2.79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칼을, 한 손에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강렬한 눈빛과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 심지어 성인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에서마저도 힘과 위엄이 느껴진다.

김은혜(엘리사벳)



이디모 티롤리니(1788년 ~ 1868년)
1823년경 제작
높이 5미터(받침대 포함), 대리석
바티칸, 로마

교 구 소 식

군중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5주일: 해병대요람 이환신 신부

◆ 교구장 동정

- 동성대(제18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4일(주일)
- 군중현안협의회의 / 국장회의
 때·곳: 2월 6일(화) 11:00 /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인니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